

발간사



마음의 통합을 고민하는 이유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심연북한연구소 소장·남북한 마음통합 연구단 연구단장)

분단 이후 70년이 넘는 동안 남북한 정부와 주민 모두 통일을 절 대적인 명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통일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친 전 쟁을 겪었지만 다시 전쟁을 하더라도 '적'을 제압하겠다는 태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을 기회로 한때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 되기도 했지만 평화적 공존조차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이나 연구들은 쉽게 쏟아지 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와 정책 그리고 고민과 노력들이 다 쓸데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과 지극히 반통일 적인 상황의 엇박자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동시대에 궁극 적인 '통일'에 대한 이야기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남북한에서 생각하는 통일은 정치이념과 체제가 동일한 통일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통일이야기는 단일국 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어떤 체제이념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집 중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통일 이야기는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원수 같은 남녀가 만 나 다짜고짜 결혼식을 어떻게 치루고 결혼 후 어떻게 살지를 이야기 하는 격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결혼 이야기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 다. 오히려 만나서 이야기 하면 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나빠 질 가능성이 큼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면 둘이 잘 맞는지 사귀 면 행복한지 그리고 결혼하면 서로에게 무엇이 좋은지 결정한 다음 에 결혼 방식이나 결혼 후 사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 자면 통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북한 사람들 이 서로 어울려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어울릴 수 있는가를 알기 위 해서는 우선 나(혹은 우리)와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에 분노하고 감격하는지 무엇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지 등등.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 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마음이 끌려야' 사귈 것이고, 사랑을 거쳐 결 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마음은 관 계의 출발이면서 근원입니다.

남북한 마음 통합 연구는 기본적으로 뒤틀려 있는 통일에 대한 이 야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리고 단일국가 형성과 단일 이 념 추종에만 집착하면서 나의 삶에서 멀어져 버린 통일 이야기를 손 에 닿을 수 있고, 오감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는 노력의 기도 합니다. 다만 마음의 통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음의 동질화 를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끌리고' 난 다음 마음이 '통'하 면 되는 것입니다. 끌리고 통하는 것은 물론 가지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북한대학원 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구 북한미시연구소) 의 남북한 마음통합 연구는 단계를 거치면서 한 걸음씩 내딛어 왔습 니다. 학문적 수준의 제고를 위한 고민도 더 해야 하겠지만 학자들 의 연구가 그들만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항상 있었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통일문제는 보통사 람들과 더불어 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의 확산과 피드백 그리고 연구자와 시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일차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뉴스레터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통로 를 통하여 우선 남한 사람들끼리라도 마음이 끌리고 통하기를 기대 합니다.

2017년 6월

연구성과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동하는 북한여성의 원거리 모성: 친밀성의 재구성과 수치심의 가능성

『문화와 사회』 제23권(2017)

이 글은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모성을 친밀성과 수치심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한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을 기점으로 북한 여성의 역할은 전통적인 ‘어머니(mother)’에서 ‘가족부양자(breadwinner)’로 변화되었다. 본 글은 중국과 한국으로 이주해 온 북한 여성이 공간적 거리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어떤 방식으로 넘나들며, 자녀와의 친밀성을 재구성하는지 살펴본다. 이동하는 북한 여성과 본국(혹은 제3국)의 자녀 사이에는 초국적 연결망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모성’, 즉 원거리 모성 실천을 구성해낸다. 하지만 전통적 모성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북한여성 은 공간적으로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죄의식을

경제적 부양으로 보상하려 하고, 송금을 통해서 자존감, 자긍심을 (재)구성한다.

북한 여성의 또 다른 삶의 전략은 자녀와의 거리두기 혹은 무관심과 같은 전복적이면서도 해체적인 모성 실천을 통해 일반적인 ‘어머니’가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여성이 특정 방식의 대안적 모성 실천을 수행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북에 혹은 제3국에 남겨둔 자녀의 삶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치심으로의 감정 전이를 경험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동하는 북한 여성이 느끼는 수치심과 같은 도덕 감정은 그녀들이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한다.



최순미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마음의 통합을 위한 남북한주민 가치관 비교: 물질-탈물질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0권 1호(2017)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적 요소로써, 현재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를 비교해 보고,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여 남북한 마음의 통합을 위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이 탈물질주의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물질-탈물질주의는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이 3.08, 남한주민 평균은 3.10으로 나타났으며,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는 문항의 응답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하위문항은 3가지이다. ‘국가 경제 성장보다 국민이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물질주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 질서 유지보다 개인 자유 존중이 더 중요하다’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문항에서는 남한주민의 탈물질주의가 더 높았다. 아울러 두 집단의 물질-탈물질주의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연령이 어릴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탈물질주의가 높게 나타났고, 남한주민은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탈물질주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구단 동정

강진연 연구교수가 2017년 3월부로 전남대학교 사회학과로 임용되어 공동연구원으로 변경되었고, 신임 연구교수로 연광석 박사를 초빙 하였습니다.

2017년 3월부로 김민지(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정고은(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연구보조원이 충원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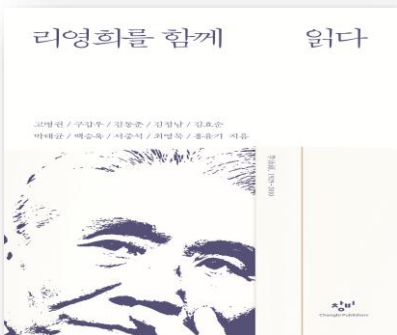


4월 25~29일, SSK 사업단의 김성경 교수, 연광석 연구교수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함께 중국의 복단대학과 남경대학에서 진행된 “전략대화”에 참여하였습니다.

5월 8일 통일부 교류협력국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이우영 단장이 ‘남북한 마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의 주요 과제 및 추진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구갑우 교수가 “리영희의 국제 정치 비평 읽기”라는 글로 참여한 “리영희를 함께 읽다”가 창작과 비평을 통해 출간되었습니다.



실험과 실천



4월 8일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함께 폴란드 다큐멘터리 “김귀덕”의 감독 Yolanta Kryswa와 Patrick Yoka를 초청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5월 20일 “분단의 상처, 재일조선인”이라는 주제로 ‘하늘색 심포니’ 영화를 상영하고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5월 15일 구갑우, 김성경 교수, 연광석 연구교수, 양계민 박사가 경북이주민센터, 경북하나센터 주최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학술포럼’에 참여하여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네트워킹 활동

SSK네트워킹 제3차 심포지엄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술대회), 김은진 발표 “1990년대 북한과 쿠바의 위기와 지원에 대한 인식 비교-국가 지도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토론: 연광석 전임연구원)

언론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인터뷰

“유승민 후보의 2015년 국회 연설은 국내 정치인 중 가장 기념비적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상태가 주류 경제학자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 후보의 ‘경제는 진보, 안보는 강경’ 기조는 세계적 조류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아베 신조, 시진핑과 비슷하다.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발표가 필요하다.”

구갑우, “혼자만 따뜻한 봄은 없다” 한겨레21 2017.04.03.

“(북한이탈주민이) 양자도 될 수 있고, 사위도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해진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과 같은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우영, “탈북민을 양자로 삼을 수는 있지만 사위는 곤란하데요” 중앙일보 2017.04.12.

“자본주의는 물질적 동기 요인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는데 사회주의는 윤리적 동기나 이런 것들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사회적 동력을 마련하는 핵심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 분야라는 것은 국가 전체의 그 정책 서열상으로도 굉장히 핵심부서 중의 핵심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영, 9개월 만에 등장한 김여정…권력 위상은? KBS 뉴스 2017.04.22.

“당장 5월 이후가 되면 민간에서 방북 신청 등 다양한 제안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어디까지 허용해줄지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고, 기존 교류 협력을 평가·반성할 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 민관 분리”라고 강조했다.

양문수, 여야 + 시민 ‘통일위원회’ 만들어 중장기 대북전략 짜자, 중앙일보 2017.05.06.

“인도적 지원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대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반인도적”이라며 “아프리카 난민을 도와주면서 군벌에게 이득이 갈 것을 생각하지 않듯 북한을 생각하지 말고 지원이 우리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여부가 북한의 정치적 결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지도 않는다”며 “대북 지원사업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일정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우영, 정권 따라 냉온탕 오간 '대북 인도지원'…'제도 마련해야', 뉴스1, 2017.05.24.

언론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칼럼

수많은 이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것은 지금 구원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식과 전문성이라는 이름에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며, 민중의 의지와 경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기 위함이였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세월호에 갇혀 있던 학생들이 아닌 선거철마다 한껏 자만심에 젖어 떠들어대는 이 사회 엘리트 집단에게 지금 우리가 던져야만 할 명령일 것이다.

김성경, 엘리트 집단의 몰락, 한겨레 2017.04.26.

북한과 어떻게든 '함께'해야 하는 한국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교류와 지원에 힘써야 한다. 지금껏 정치적 손익계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방치해온 한국 사회는 그 책임에서 아주 오랫동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북한 주민의 고통의 경험과 기억을 치유하려는 노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들의 몸에 새겨진 배고픔의 흔적을 치료하고, 생존에 매몰되어 버린 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배고픈 기억에 이기적이기만 했던 막내 고양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사랑과 배려였다. 하물며 동물도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할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말이다.

김성경, 배고픔의 기억과 치유, 한겨레 2017.05.24.

칼럼 연재 : 책의 마음, 마음의 책



지금 어디에 있나요?

김연수, 『밤은 노래한다』(문학과지성사, 2008)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자본주의적 대공황의 와중이었던 1932년 10월부터 1935년 2월까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1936년 3월까지, 간도, 동만, 연변 등의 여러 이름을 가진 지역에서,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최소 500명 최대 2,000명에 달하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당시 간도 '유격구'의 인구는 2만 정도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자기 확신을 가진 조선인 공산주의자가 몇 명 정도였는지 알기란 어렵지만, 단순한 인구비례로 보더라도 '대량학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국제연대와 조선 독립 그리고 공산의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자 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서로를 친일조직으로 1932년

2월 만들어졌다 같은 7월에 해체된 민생단의 일원으로 규정하여 죽이고 죽는 대규모 희생제의를 치른 것이다. 이른바 '반민생단 투쟁'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김연수의 『밤은 노래한다』는 이 사건을 다룬 최초의 남북 소설이다. 한흥구, 김성호, 신주백, 이덕일 등 역사학자들이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에 가중치를 두며 반민생단 투쟁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하고자 했다면, 『밤은 노래한다』는 그 참극 속에서 주관의 세계를 읽어낸다. "1933년 간도의 유격구에서 죽어간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간도의 조선인들(에게) ... 객관주의란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주관으로 결정되는 가혹한 세계뿐이었다." 『밤은 노래한다』는 그

칼럼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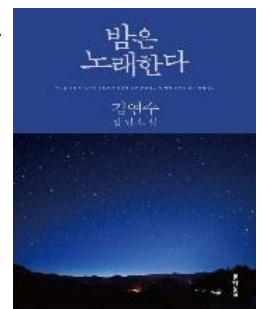
시절 간도의 소비에트에 빛과 어둠, 낮과 밤의 경계가 없었음을 보여주려 한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세계, 바로 그것이다. 역사학자의 언어로 ‘재현’할 수 없는, 아니 재현이 불가능한, 그 세계를, 소설은 울리게 하고 있다.

울림을 만드는 일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과학이 나를 부른다』) 김연수의 소설이기에, 『밤은 노래한다』에서 ‘김일성’의 자취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불순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반민생단 투쟁에 관한 남북의 역사학적 연구는 좋든 싫든 그 때 거기에 있었던 김일성을 재현하려 하고 있다. 대부분의 남쪽의 역사학 논문은, 1932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김일성에 대해 “민생단이라는 진술이 많다”는 기록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김일성은 살아남았다. 지금 거기 북한의 ‘공식’ 역사는, 반민생단 투쟁을 조선공산당의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1936년 3월 동북항일연군의 사장이었던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김일성의 이 지위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민생단 혐의를 받고 있던 100여명과 관련된 제 문서를 불태우고 그들을 포용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밤은 노래한다』에는 그 ‘역사’가 없다. “조국과 민족만 한 야망이 없소.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라고 말하는 한 인물은, 조선인에게는 좋은 직장이었던 만주철도에서 ‘측량’의 불가능성을 익히던 직원이었지만 사랑이라는 사건 때문에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 삶이 얽히면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가 그 구분이 없음을 몸의 생사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소설의 화자 김해연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 후’, 김해연은 ‘진짜’ 공산당원이 되어 돌아온다. 그렇게 소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로 시작되는, 김해연을 ‘사랑했기에’ 김해연을 사지에 몰아넣기보다는 스스로가 죽는 선택을 하는 조선인 공산주의자 이정희의 마지막 편지를, 마지막에 남겨 둔다.

김일성 ‘서사’의 집합인 북한식 소설 ‘불멸의 력사’ 총서 가운데서도 걸작으로 평가받았던 현승걸, 최학수

의 『백두산 기슭』(1978년 1판)에서는, ‘밥을 태워’ 민생단원으로 지목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를 보듬은 ‘조선혁명의 지도자’ 김일성을 재현하려 한다. 김일성이 민생단원이라는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분석하려는 역사학자와 달리, 김일성의 역할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은유적으로 그 역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밤은 노래한다』와도 달리, 반민생단 투쟁의 오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하고 싸워 그 오류를 시정한 것이 김일성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공식 역사를, 『백두산 기슭』이라는 ‘소설’은, “현대인들속에 퍼지고 있는 그분에 대한 이 신비로운 전설들은 어떤 사실들의 루적과 인민적념원의 교차현상이 아니겠는가”라고 정당화한다. 역사책보다 소설책이 ‘근대’의 과학에 가까운 형국이다. 남북의 정치경제체제의 차이가, 재현의 형태로서 논문과 소설의 위상의 전복을 가져오는 것일까.

잡언의 잔치, 그래서 소설로서의 장단점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밤은 노래한다』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지금 어디에 있나요”라는, 살아 있다면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질문을 마지막에 다시 불러오는 『밤은 노래한다』는, “유토피아란 폭력을 은폐하려는 자들의 거짓 관념에 불과하다”는 잡언을 생산하면서, “열망은 단지 열망하는 그 순간에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뿐이”라는 작가의 강한 후기와 공명하고 있다. 진보의 열정이란, 그 때 거기서 지금 여기서 불가능과 마주하지만 불가능을 넘어 서지 못한다는,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작가의 명령이다. 남의 『밤은 노래한다』와 북의 『백두산 기슭』을 읽으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 누가 왜 기억하려 하는가, 라는 질문에 새삼 몰두하게 된다.



편집: 영광석 연구교수, 김민지 연구보조원